은행 '돈줄 죄기' 영세 中企 '비명'

추가 대출은 커녕 만기 연장도 안돼

"추석 코앞인데 월급 어떻게 맞추나"

은행권이 최근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을 억제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환율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자금난 '아우성'** = 광주시 하남산단내 A부품업체는 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2~3개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대폭 상승해 연리 부담액이 3~5명의 직원 월급만큼 늘어난데다, 은행들이 신규대출마저 막아버리는 바람에 추가 설비투자를 내년으로 미뤘다.

소촌공단내 B사의 사정은 더 막막하다. 오는 9월 말까지 3년 만기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나, 자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B사 대표는 "은행들이 상환기간 연장을 거부한데다, 당장 제공할 담보도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30여명 직원들의 보너스는 커녕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담양의 C업체는 최근 업종전환과 함께 새 생산설비를 구축하려고 은행문을 두들겼다가,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권으로부터 딱지를 맞고 말았다.

C업체 대표는 "수년동안 거래해 온 은행이 담보가 없다고 추가대출을 거절했다"면서 "정부가 어려운 중소업체의 현실을 살펴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대출 증가세 '뚝'**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중기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신규 대출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업종인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거나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7월 중순부터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의 기한 연장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우리은행도 경기에 민감한 '특별관리 업종' 대출은 본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주요 은행들의 중기 대출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했다.

국민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7월 9천억원에서 8월 25일 현재 2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리은행은 이달에 6천900억원을 늘렸지만 7월 증가액 1조1천억원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이와 관련, 최근 중기중앙회가 전국 2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65.7%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반기에는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예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추석 햇밤 나왔어요 신세계백화점은 28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 햇밤을 선보였다. 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 중 하나로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가격은 100g에 2천900원. /연합뉴스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우건설, 2012년까지 1천억 투입

전남 4곳에 바이오 발전설비 설치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가축분뇨가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다.

대우건설이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발전에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전남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 등 도내 4개 지역에 1천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대우건설과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대우건설은 2012년까지 화순·무안·함평·영광군에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공법을 적용, 가축분뇨를 1일 700t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최근 순천에 하루 처리용량 30t의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이 독일 기술과 합작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대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이 국내 기술로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군이 부지만 선정해 주면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운영 등을 모두 맡게 되며 발전시설이 완성되면 하루 33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처리 후 생산된 질 좋은 액체비료는 농가에 무료로 제공한다.

시군별 투자액과 분뇨처리 규모는 무안군의 경우 440억원에 하루 300t, 화순·함평군은 각각 220억원에 하루 150t, 영광군은 120억에 1일 100t 등이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는 그동안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3천 곳이나 운영될 정도로 호평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로열티 문제 등으로 확대보급이 어려웠으나 대우건설이 20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내기술을 이번에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전남도는 이번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로 돼지 사육이 많은 이들 4개 군에서 돼지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처리하게 돼 환경오염 방지와 2012년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분뇨문제 해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개설

호남대 … 내달 3일까지 수강생 모집

호남대(총장 장병완)는 호남지역 최초로 다음달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광주·전남의 부동산 트렌드를 주도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부동산 최고 과정'은 엘리트 부동산 교육을 통한 폭넓은 인맥 교류와 부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최고 전문가 양성이란 목표에 걸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최상의 강사진으로 구성됐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강의내용은 부동산시장 분석, 실전경매 기법, 부동산관련 법률, 해외부동산관련 강좌 등 전 분야에 걸쳐 다뤄진다.

강사진은 박종성 광운대 교수, 연제호 건국대 교수, 이성근 호남대 교수, 박정우 연세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등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 호남대 홈페이지(www.honam.ac.kr)나 방문 및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60명으로, 강좌는 다음달 3일부터 2009년 6월까지 호대 쌍촌동캠퍼스에서 열린다. 문의 062-381-4986. 062-370-8336.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캐피탈 중고차 금융포털 '오토인사이드'

고객 방문 100만 돌파 '눈앞에'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중고차 금융포털 '오토인사이드(www.autoinside.co.kr)'가 방문 고객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28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오픈한 오토인사이드가 국내 중고차 쇼핑몰 가운데 3위로 올라서는 등 유력 중고차 금융포털로 자리매김했다.

업계 1, 2위인 보배드림과 SK엔카 사이트가 각각 오픈 8년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오토인사이드는 철저한 허위매물 관리와 원스톱 금융서비스 등을 급성장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방문 고객 100만명 돌파를 맞아 9월25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홈페이지를 통한 퀴즈 응모 고객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3만원권 주유권을 지급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光銀, 직원 1인당 생산성 1위

1人 총자산 154억 … 지방은행 중 최고

광주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전국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은행의 직원 1인당 총자산은 154억원으로, 대구은행(124억원), 부산은행(108억원) 등에 비해 높았다.

광주은행은 또 직원들의 영업력을 평가하는 1인당 평균 예수금 및 대출금도 각각 97억원, 94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구은행(예금 86억원, 대출 74억원), 부산은행(예금 69억원, 대출 69억원) 등 다른 지방은행의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자산 건전성면에서도 타 지방은행을 압도했다. 광주은행의 올 상반기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60%로, 부산은행(0.66%), 대구은행(0.71%) 등에 비해 낮았다.

한편 광주은행의 남자직원 평균 급여는 3천50만원으로, 대구은행(3천630만원), 부산은행(3천470만원) 등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휘 우리은행장 來光

이종휘 우리은행장〈사진〉은 29일 '호남지역 우수고객 초청 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다.

이 행장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서남해안 조선산업 벨트와 새만금 사업 등 호남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피력한다.

이 행장은 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채소류·육류 가격 추석 앞두고 올라

추석이 다가오면서 채소류와 육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적상추(100g)가 상품성이 떨어지고 출하물량이 감소해 전주보다 450원(34.6%) 오른 1천750원에 거래됐다. 오이(1개) 역시 전주보다 100원(16.7%) 오른 700원에, 양파(3Kg)는 400원(10.3%) 오른 4천300원에 거래됐다.

육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 삼겹살(100g)이 전주보다 100원(5.4%) 오른 1천940원에, 닭고기는 생닭(851g)이 전주에 비해 610원(12.6%) 오른 5천470원에 거래됐다. /연합뉴스